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2026년 5월 사무실 확장을 통하여 증가하는 물동량 및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환경 개선 작업 진행
-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LAX 및 ORD 향 다수의 Charter 편 운영을 통하여 프로젝트 화물 및 긴급 화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미주 노선의 공급 부족 및 Charter 수요 증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스페이스 확보 및 수요 대응을 통하여 판매 경쟁력 확대
- 2026년 6월 3일 : 지방선거일

🌸 홍콩지점

- 6월 19일 : Tuen Ng Festival

🌸 타이페이지점

- 2026년 6월 19일~21일 : 단오절 (총 3일)

🌸 페낭지점

- 2026년 6월 1일 : 국왕 탄생일

- 2026년 6월 2일 : Replacement Wesak Day
- 2026년 6월 17일 : 아왈 무하람 (이슬람 새해)
- ✿ 싱가포르지점
 - 2026년 6월 1일 : Vesak Day (부처님 오신날)
- ✿ 방콕지점
 - 2026년 6월 1일 : Visakha Bucha Day (석가탄신일 5월 31일, 대체 휴일)
- ✿ 중국 전지점 (충칭/상하이/광저우/톈진/칭다오/다롄지점)
 - 2026년 6월 19일~21일 : 단오절 (총 3일)
- ✿ 상하이지점
 - 긴급연락처 : 항공 채항자부장 86 155 0214 9791, 해운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
- ✿ 다롄지점
 - 다롄지점 신규오픈 및 26년 2월부 정식 업무 개시 (대표번호 : 86-411-3924-8813)

지역동향 📌

- ✿ 서울지점
 -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장기화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영공 제한 및 에너지 공급 불안 영향으로 글로벌 물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
 - 국내 경제는 반도체 및 제조업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과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부담은 지속
- ✿ 홍콩지점
 - 홍콩의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호조와 국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5.9% 증가했다고 발표, 수출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하드웨어와 통신장비로 구성
 - S&P 올해 홍콩 주택 가격 최대 10% 상승 전망 : 신용평가 기관 S&P 글로벌에서는 홍콩 부동산 시장이 올해 남은 기간동안 3~5%의 가격이 상승하여 연간 전체적으로는 8~1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도쿄지점

-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플레이션 압박 최고조,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고, 역대급 엔저가 겹치며 수입 물가 폭등, 정부가 1조 엔의 예비비를 투입해 전기·가스·휘발유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5월 현재 재원 고갈 위기로 추경 편성 불가피
- 물류비와 원자재 상승 여파로 대형 식품·생필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
- 북·중·러 밀착과 대만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중심의 '아시아판 나토(IPTO)' 창설 논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

❁ 타이페이지점

- COMPUTEX Taipei 2026 전시회 : 2026년 6월 2일~5일, 4일간 약 1,500여개 업체 참가하여 AIR 서버, GPU RACK, 반도체장비 데모제품, 로봇, 산업장비, 고가 IT 샘플 등을 전시

❁ 방콕지점

- Maersk 등 주요 선사 5월 12일자 "Strait of Hormuz Operations Update" 발표 — 통항 정상 재개되었으나 War Risk Surcharge 는 유지
- 2월 21일 미 대법원 판결 후 美 행정명령 → 태국 포함 글로벌 15% 단일 관세 적용 (Section 122 Trade Act), 기존 19% 대비 4%p 인하
- 디젤가 안정세 진입, 4월 피크 대비 약 18% 하락하여 4월 트럭킹 운임 30% 인상안은 잠정 보류 상태

❁ 페낭지점

- 말레이시아제조업연맹 (FMM) 조사결과 응답기업 72%가 중동분쟁 장기화 속 원자재 공급 약화 및 경영환경 악화된 것으로 응답, 수지, 폴리머, 석유화학 원료, 산업용 화학물질, 포장재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원자재로 지목
- 7월 1일부터 수입전기차 진입 기준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26년7월부터 완성수입(CBU) 전기차 대상 최소 CIF가격 기준을 20만링깃으로 상향하는 신규규정 시행 예정이며 완성 수입 전기차 대상 최소 모터출력기준을 기존 200kW에서 180kW 이상으로 조정하고 수입 관세, 소비세, 판매서비스세 (SST)부과 재개 예정

❁ 싱가포르지점

-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920만 싱가포르 달러 (226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2026년 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으나 중동 분쟁으로 전반적인 물가 인상, 특히 에너지, 전기료 등은 하반기에 더 큰 인상이 예상됨

❁ 호치민지점

- 비엣젯항공, 뱀부항공 등 베트남 LCC 업체, 성수기 앞두고 위탁수하물 요금 기습 인상, 유류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수익 확대 차원으로 해석

❁ 충칭지점

- 2026년 5월 누계 충칭의 국경 간 도로 버스는 6,000회 이상 운행 (운행 노선 약 200여개), 운송된 화물 가치는 약 57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3배와 4.3배 증가하였으며 운행 횟수와 화물 가치 모두 2025년 연간 총량을 초과

❁ 상하이지점

- 중동 지역 리스크 완화 움직임 속에 일부 선사들의 서비스가 재개되는 추세
- 카타르 LNG 운반선이 약 70일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하여 중동 해상 물류 정상화 기대감 확대
- 국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글로벌 물류 시장 전반에 연료비 부담 지속

❁ 광저우지점

- 26년 1분기 광둥성 GDP 성장률은 6%로 최근 11분기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년만에 전국 평균 성장률 5%를 상회, 광둥성내 도시별 GDP 규모는 선전 (9,594억위안), 광저우 (7,989억위안), 둥관 (3,099억위안), 포산 (2,923억 위안), 후이저우 (1,457억 위안) 순
-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5.7(목) 02:00부터 T1 터미널의 11개 국내 항공사를 T3 터미널로 일괄 이전하여 운영중, 대상 항공사는 중국국제항공 (国航), 선전항공 (深航), 쿤밍항공 (昆明航), 산둥항공 (山东航), 티베트항공 (西藏航), 하이난항공 (海航), 수도항공 (首都航) 등 총 11개 항공사
- 중국 4월 수출, 전년비 +14.1%로 전망치 상회... AI 수요가 실적 견인, 미국/이란 전쟁 영향은 제한적

❁ 선전지점

- 제 15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2026~2030)의 첫해부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입 무역이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8조 6,000억 위안에 달하는 성급 중점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사회 분야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민생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며 정치 분야에서는 APEC 정상회의 (11월 개최 예정) 준비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선전의 무역 구조 고도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텐진지점

- 'AI가 항만 및 해운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이끈다'를 주제로 제4회 천진 국제 해운산업 박람회가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국가전시센터에서 개최될 예정

🌸 칭다오지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중성과]

- 미국산 여객기 200대 구매 계획 1차 승인
- 연간 구매액 170억 달러 이상 2025년 10월 체결된 '대두 계약' 외에 2026년 (일정 비율),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
- 400여 개 미국 육가공업체의 소고기 수출 재개 : 만료되거나 중단된 400개 이상의 육류 가공 시설 목록이 갱신 및 복원되었으며, 향후 모든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예정
- 희토류 공급망 안보 :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공급망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은 이트륨(Y), 스칸듐(Sc), 네오디뮴(Nd), 인듐(In)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

🌸 밀라노지점

- 2026년 이탈리아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0.5~0.8% 수준의 저성장 구간, EU 집행위는 2026년 실질 GDP +0.5%, 물가 +3.2%를 제시했으며, Bank of Italy도 에너지 비용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률을 +0.5%로 전망
- 롬바르디아·베네토·에밀리아로마냐 등 북이탈리아 제조업 중심 지역은 에너지 가격 및 금융비용 상승 부담이 커져 기업 투자와 재고 운영이 보수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6월은 여름 휴가철 전 이동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철도·항공·공항 지상조업 관련 파업 공지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

🌸 파리지점

- 경기 둔화 우려 지속, 기업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6월 파리에서 Korea Expo Paris 2026 개최 예정

물류동향

❁ 서울지점

- 최근 한국발 미국 및 유럽항 시장은 일부 Local 대형 화주 물량이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발 Sea & Air 수요 조정 영향으로 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 수준
- 한국발 유럽항 시장에서는 화장품 및 공장 설비 등 프로젝트성 물량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주항 시장 또한 Charter 및 긴급 화물 중심의 수요가 견조함
- 해운시장 역시 공급 조절 (Blank Sailing), 우회 운항 및 항만 병목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긴급 화물의 항공 전환 (Sea-Air) 수요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의약품 및 콜드체인 (Cool Chain) 물류수요 확대와 AI·데이터센터·반도체 관련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은 수요 지속 성장 추세

❁ 홍콩지점

- HUTCHISON PORTS 홍콩 최초 자율주행 트럭 도입, Hutchison Port Holdings Trust 는 Kwai Tsing's Terminal 4 에 AI 기반 자율주행 터미널 트럭 6 대 도입 발표, 추가로 향후 전기 트럭, 전기 리치스태커 및 관련 배터리 교환, 충전소 도입 등 친환경 기술 포트폴리오도 강화 예정
- CX, 10년 만에 방콕 행 주 1회 화물기 운항 재개, 매주 수요일, 747-400F

❁ 도쿄지점

- HBM 등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일본 내 데이터 센터 확충과 소비된 AI 구축 붐이 대일 수출을 견인, 5월 초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129.7% 급증하는 등 고부가가치 장비 교역이 활하고 또한 중동 전쟁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스케줄이 불안정해지자, 납기가 시급한 IT 및 자동차 정밀 부품들이 해상에서 항공으로 긴급 전환되는 물량도 크게 증가
-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중국발 이커머스 환적 화물이 급증하면서 중소 수출업체들의 스페이스 확보 경쟁 치열, 운임이 20% 이상 치솟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일본 노선 중심의 LCC 들은 여객기 하부 화물칸 (Belly Cargo)을 적극 활용하여 직구 화물과 단가가 높은 정밀 부품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화물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타이페이점

- AI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미국행 수요 증가 추세
- 6/1 부 한국행 FSC 추가 인상 : KE, LJ, CI, BR NTD29/kg (USD0.92/kg), 기존 NTD22~28

🌸 방콕지점

- 현재 램차방향 선박 대기 약 1 일 수준 유지 중이며 3 월 극심한 혼잡에서 다소 완화
- 수입 D/O 사전 발급 + 통관 서류(Invoice-P/L-AWB) 사전 준비로 픽업 1~2 일 단축 가능
- Maersk, 태국 출발 미주 멕시코·서안 남미·중미 PSS (Peak Season Surcharge) 인상 발표, 5 월 23 일 시행 (비규제국 기준), 베트남 5/26, 규제국 6/10 적용
- 두리안 시즌 본격화, 동부 (짠타부리·라용·뜨랏) 두리안 출하는 5 월~6 월 피크이며 2026 년 총 생산량 185 만~207 만 톤 전망 (전년비 +15~33%)
- 항공유 부족으로 인해 TG 같은 경우는 왕복할 수 있는 항공유 주입으로 실제 항공편 화물 적재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요대비 공급 부족 심화
- e-Commerce 백로그로 BKK 화물터미널 도착~불출 3~7 일 지연 사례 보고
- 디젤가격 안정에 따라 트럭킹비용 15% 추가 인상안은 보류 상태 (4 월 적용된 단계적 10% 인상안은 유지)
- 냉장·냉동 차량 두리안·열대과일 수출 성수기로 수급 불안정으로 최소 3~5 일 사전 예약 필수

🌸 싱가포르지점

- 창이공항 화물 물동량 역대 최고 수준 갱신 중이나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등이 공급 가용 능력 축소와 운임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싱가포르 경유 환적화물의 체류 시간이 7~8일 이상 지체되고 있음
- 싱가포르 물류 업계에서는 AI 기반 수요 예측,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데이터 교환, 창고 자동화 로봇, 클라우드 물류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육상교통청(LTA)이 2026년부터 중형 전기트럭 1대당 SGD 4만 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린 플레이트 코리더를 시범 운영중

🌸 호치민지점

- OZ 여객기 W/BODY 전환 이후 SGN 발 SPACE 문제없으며 항공운임도 큰 변동 없이 5 월 운임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국행 해상 운임은 큰 상승 없으나 미주, 유럽행 해상운임은 높은 요율이 유지되고 있고 항만 적체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통 2~3 일 정도 지연

☀ 페낭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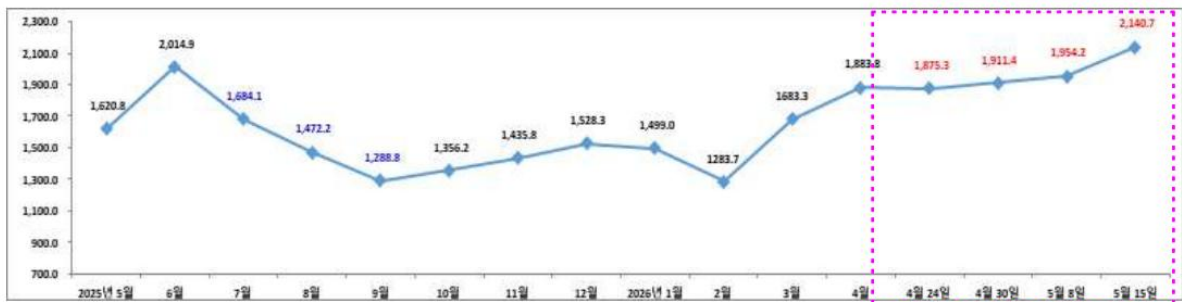
- 머스크는 5월 25일부터 아시아에서 북유럽, 지중해행 화물에 대하여 "중량초과 부가료"를 개정하여 부과, 부과금액은 TEU당 400달러이며, 총중량(VGM)기준 25톤이상의 모든 컨테이너에 적용

☀ 충칭지점

- 26년 5월 8일, 개주(开州) 항공 화물 터미널이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충칭의 항공 물류 네트워크가 충칭시 동북 내륙 지역으로 확장되어 지역 집산 능력 향상
- 3월 말 기준 국제 화물 항로는 24개로 주간 76편을 운항하며 부다페스트, 르주, 뉴델리 등 주요 항로를 개설해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 상하이지점

- 5월 15일 기준 SCFI 종합운임지수는 2,140.66으로 전주 대비 9.5% 상승



- 선사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운임에 반영하고 있으며 GRI (운임인상) 적용을 지속하면서 시장 수요 변화를 점검하는 상황
- 중국-유럽 노선은 중동 분쟁 영향에 따른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높은 항공운임수준 유지, 중국-미주 노선은 첨단기술 및 전자상거래 수요 영향으로 시장 수요는 견조하나 다만 운임 변동성과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공급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리스크 상존.

☀ 광저우지점

- 북미항 전자상거래 물량 지속되나 전체 시장은 안정된 가운데 일부 공급 감소, 전주 대비 운임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항은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하며 운임 상승 추세
 - LAX항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일부 항공편 취소 (K4·Y8·QF·CZ)로 인한 공급 감소로 운임 전주 대비 상승, ORD항 데이터센터 캐비닛 및 전자상거래 물량 지속 출하되고 있으나 공급 증가 (K4·Y8) 로 운임은 보합세, JFK항 전자상거래 물량 지속 출하되며 볼룸 화물 증가 · 중량화물 부족 상황 발생

- FRA, AMS행 전자상거래 물량과 더불어 일반화물 수요가 증가하며 운임 상승 추세
- 인도 주요 항만, THC 인상 단행 : 미-이란 전쟁발 할증료에 화주 추가 비용 부담 가중, 로드스타는 인도 주요 터미널 운영사들이 THC (Terminal Handling Charge)를 15~20% 인상하면서, 이미 긴급유류할증료 (EBS) 와 전쟁할증료 (WRS)를 부담하고 있는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

❁ 선전지점

- 6월에 접어들면서 항공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여객기 감편으로 선전공항 화물 공급력이 큰 폭 감소하고 운임 변동성 확대 예상
- 국제유가 폭등으로 2026년 초 해상 임은 2025년 동기 대비 약 15~20% 상승, 6월 들어 CMA CGM, Hapag-Lloyd 등 주요 선사들이 종합 운임 인상을 재차 발표했으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는 5월 하순 이미 2218.15포인트까지 상승, 엔텐, 서커우 및 닝보, 상하이, 선전 등 항만의 6월 선박은 이미 모두 예약이 완료되어 Full booking 및 Off-load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칭다오지점

- 교통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칭다오항의 외국 무역 화물 처리량은 전년비 9.4% 증가한 1억 4천만톤
- 26년 1분기중 칭다오항은 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을 커버하는 7개의 새로운 화물 항로를 개설하여 칭다오항의 대외무역항로는 약 240개, 180여개국 700여개 항구와 상호 연결

❁ 텐진지점

- 5월 19일, 몽골 HUNNU AIR (MR), 울란바토르-천진 취항 (2/W, D26)
- 2026년 6월 주요 선사 (머스크, MSC, CMA CGM, 하팍로이드 등) GRI/FAK 인상 및 성수기 할증료(PSS) 시행하면서 해상 운임 전반적인 상승세 예상

❁ 밀라노지점

- 국적사 FSC (Fuel Surcharge) 6월 1일부 EUR0.10/kg 인하, 1.45/kg로 조정 (4/1부 0.20유로 인상, 5/1부 0.30유로 인상 후 6월부 인하 공지)
- Lufthansa Cargo, 6월 2일부 Tel Aviv 운항 재개, 그 외 중동지역으로의 10월말까지 비운항으로 발표되었으나 재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
- 해상 EFC (Emergency Fuel Charge)는 HMM EUR75/TEU, MSC EUR50/TEU 유지 중

- 트럭킹 관련, 유럽 전역의 driver shortage와 연료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픽업 및 이탈리아 주요 항만 ~ 공항구간 운임은 전월비 포함 또는 소폭 추가인상 가능성이 있음

❁ 파리지점

- 한국계 주요 항공사 FSC 인하 : KE, KJ - EUR1.45/KG
- 해상 스케줄 정시성 불안정으로, roll-over 빈도 증가
- 주요 항만 혼잡도 (전월대비) : Le Havre 는 평균 1 일에서 4 일 체류로 악화, Fos-sur-mer 는 평균 8 일에서 1 일로 크게 개선

❁ 애틀란타지점

- Diesel 가격 급등으로 Trucking 비용의 상당한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울러 향후 영어 미숙자 등 CDL (Commercial Driver's License) 발급 요건이 강화로 인한 Driver 부족 사태 예상되어 Trucking 비용의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미국/이란간 전쟁 영향으로 일부 항공사의 운항 제한 및 스케줄 조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경유 노선의 변동성 확대
- 일부 선사들은 공급 조절(Blank Sailing) 및 저속 운항(Slow Steaming) 전략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 리드타임 증가와 운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홍콩지점

- HONGKONG AIR CARGO 여객기 BSA Program for Australian Routes (May-December 2026) : MEL 3/W (D135), SYD 4/W (D2467)

❁ 방콕지점

- Maersk, 호르무즈 해협 정상 운항 재개 (5 월 12 일 공식 확인), 유럽항 케이프타운 우회 노선 일부 수에즈 복귀 검토 중
- CMA CGM, Hapag-Lloyd, 중동 기항 점차 정상화 중이나 War Risk Surcharge·BAF 는 유지
- PSS (Peak Season Surcharge) : 극동→멕시코·서안 남미·중미 5/23 부 시행 (Maersk 발표)

- 태국→한국 EFS USD 100/20ft, USD 200/40ft 유지, 종전시 6~7 월중 단계적 폐지 가능성
- 기존 LCC 항공사 (TW,XJ,LJ) 운행 중단 및 메이저 항공사 감편으로 (KE : 3 편→2 편, TG : 3 편→1 편) 화물 스페이스 부족 현상 심화
- 중동 경유 유럽향 카타르·에미레이트·에티하드 — 편수 점진적 정상화 진행중
- ❁ 파리지점
 - 티웨이항공 : 6월중 총 4회 결항 예정 (6/6, 8, 15, 22)

기타 공지사항 📌

- ❁ 방콕지점
 - 대미 수출 화물에 대하여 관세 19→15% 인하 적용 받으려면 태국 원산지 증명 (C/O Form ART/일반 C/O) 필수 첨부 필요, 단순 환적의심 화물은 美 세관 강화 심사 진행중
 - 태국 정부 두리안 수출 검역 강화, 패킹하우스 GAP 인증, 對中 수출 화주는 검역 일정을 감안하여 최소 +1~2 일 리드타임 권장